coupang newsroom

# [보도자료] 쿠팡, 부여군과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11. 18.

쿠팡이 18일 충청남도 부여군과 부여군청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해운 쿠팡 리테일 디렉터(사진 왼쪽)와 박정현 부여군수(사진 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토마토, 수박, 멜론 등 부여군 농특산물 로켓배송으로 신선하게 전국 각지에서 받아볼 수 있어**
- **어려움 겪는 지역 농민들 판로 확대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

2021. 11. 18. – 쿠팡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에 두 팔을 걷었다.

쿠팡은 충청남도 부여군과 부여군청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해 정해운 쿠팡 리테일 디렉터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앞으로 부여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밤, 대추방울토마토, 수박, 멜론 등 부여군이 인증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지역 생산자와의 직거래는 뛰어난 품질과 거품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부여군은 지역 농민들의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쿠팡 로켓프레시의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으로 간편하게 전국 각지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쿠팡이 18일 충청남도 부여군과 부여군청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측은 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모은다. 특히 쿠팡은 부여군 농산물 통합 브랜드 '굿뜨래' 상품들을 널리 알리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굿뜨래 브랜드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코로나19로 언택트 마케팅이 급부상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도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쿠팡과 함께 우수한 굿뜨래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운 쿠팡 리테일 디렉터는 "부여군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전국 쿠팡 고객에게 로켓배송으로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